



충남의회

vol.101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 핑크몰리와 가을을 즐기는 도민들



목차(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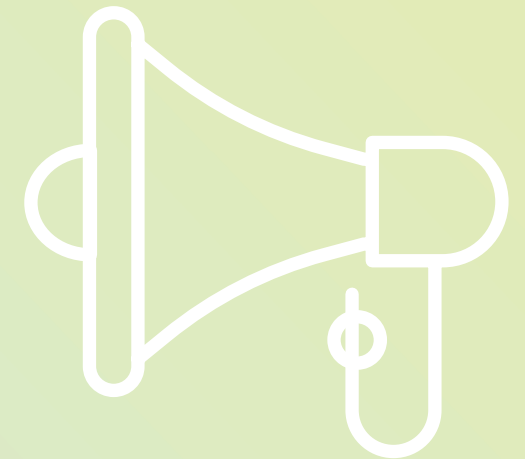
첫번째 소통 의정	개회사	6
	홍보대사 이야기	8
	다움갤러리	10
	찾이슈	17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6
	만화로 보는 의회	28
두번째 선진 의정	5분 발언	32
	알기쉬운 의회용어	48
	도정·교육행정 질문	50
	동행한걸음	64
세번째 책임 의정	상임위원회	70
	연구모임	77
	의정토론회	80
	표지이야기	90
	도민제보	94

발행
충청남도의회
편집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전화
041) 635-5390
팩스
041) 635-5293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도민중심의 공감하는 의회

공감하는 소통의정으로
220만 도민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먼저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는
충남의회가 되겠습니다.



소통 의정

개회사	6
홍보대사 이야기	8
다움갤러리	10
찾이슈	17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26
만화로보는의회	28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제34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 특히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충남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도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복구와
지원에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동안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활동이므로 계획단계에서
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보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국비 확보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통과, 석탄 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충남의 역량을 모아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한 대백제전 개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역사 문화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충남에 오시는 국내외 방문객들께서
문화강국 대백제의 위상을 확인하고 충남과 좋은 인연을 맺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무엇보다도 도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입니다. 엄격
하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는 건전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충청남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7.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들길을 걸으며

나태주



세상을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제는 내 가슴에 별이 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어제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제 내 발에 밟힌 풀잎이
오늘 새롭게 일어나
바람에 떨고 있는 걸
나는 봅니다
나도 당신 발에 밟히면서
새로워지는 풀잎이면 합니다
당신 앞에 여리게 떠는
풀잎이면 합니다



나태주 시인, 교육인

출생

1945년 충청남도 서천

데뷔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시
'대숲 아래서' 등단

수상

2020년 제31회 김달진문학상 시부문
2019년 제30회 소월시문학상 대상
2017년 제13회 김삿갓문학상

경력

2020년~2021년
제43대 한국시인협회회장
2010년~2017년
제14·15대 공주문화원 원장



1945년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초현리 111번지 외
가에서 출생하여 공주사범학교와 충남대학교 교육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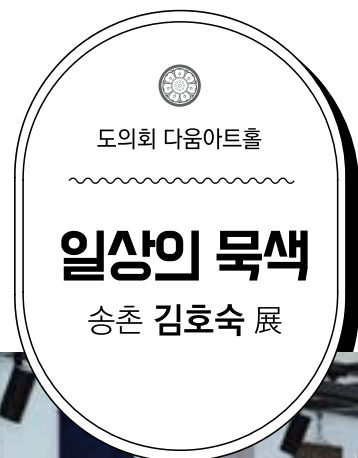
2007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4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친 뒤, 공주문화원장을 거쳐 현재 공주풀꽃문학관
을 운영하고 있다.

1971년 [서울신문(현, 대한매일)] 신춘문에 시 '대숲 아래서'
가 당선돼 문단에 데뷔, 등단 이후 끊임없는 왕성한 창작 활
동으로 수천 편에 이르는 시 작품을 발표해왔다. 쉽고 간결
한 시어로 소박하고 따뜻한 자연의 감성을 담아 많은 독자
의 사랑을 받아왔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풀꽃'이
선정될 만큼 사랑받는 대표적 국민 시인이다.

1973년에는 첫 시집 『대숲 아래서』를 펴냈고, 이후 1981년
산문집 『대숲에 어리는 별빛』, 1988년 전시집 『빈손의 노
래』, 1999년 시화집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2001년

이성선, 송수권과의 3인 시집 『별 아래 잠든 시인』, 2004년
동화집 『외톨이』, 2006년 『나태주 시선집』, 『울지 마라 아내
여』, 『지상에 서의 며칠』을 비롯하여 『누님의 가을』, 『막동리
소묘』, 『산촌엽 서』, 『눈부신 속살』, 『그 길에 네가 먼저 있었
다』,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 『마음이 살짝 기운다』,
『어리신 어머니』, 『풀꽃과 놀다』, 『혼자서도 꽃인 너에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문학작
품을 출간 하였다.

주로 집에서 글을 쓰고 초청해 주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 문
학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은 공주에서 살면서 공주풀꽃문
학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풀꽃문학상과 해외풀꽃문학
상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공주문화원장과 충남문화원연
합회장을 역임했다.



梅蘭菊竹

Part 1
7월 17일부터 개최

8월 11일까지
충청남도의회 1층에서
일상의 묵색을 주제로 사군자 작품 등
32점의 작품을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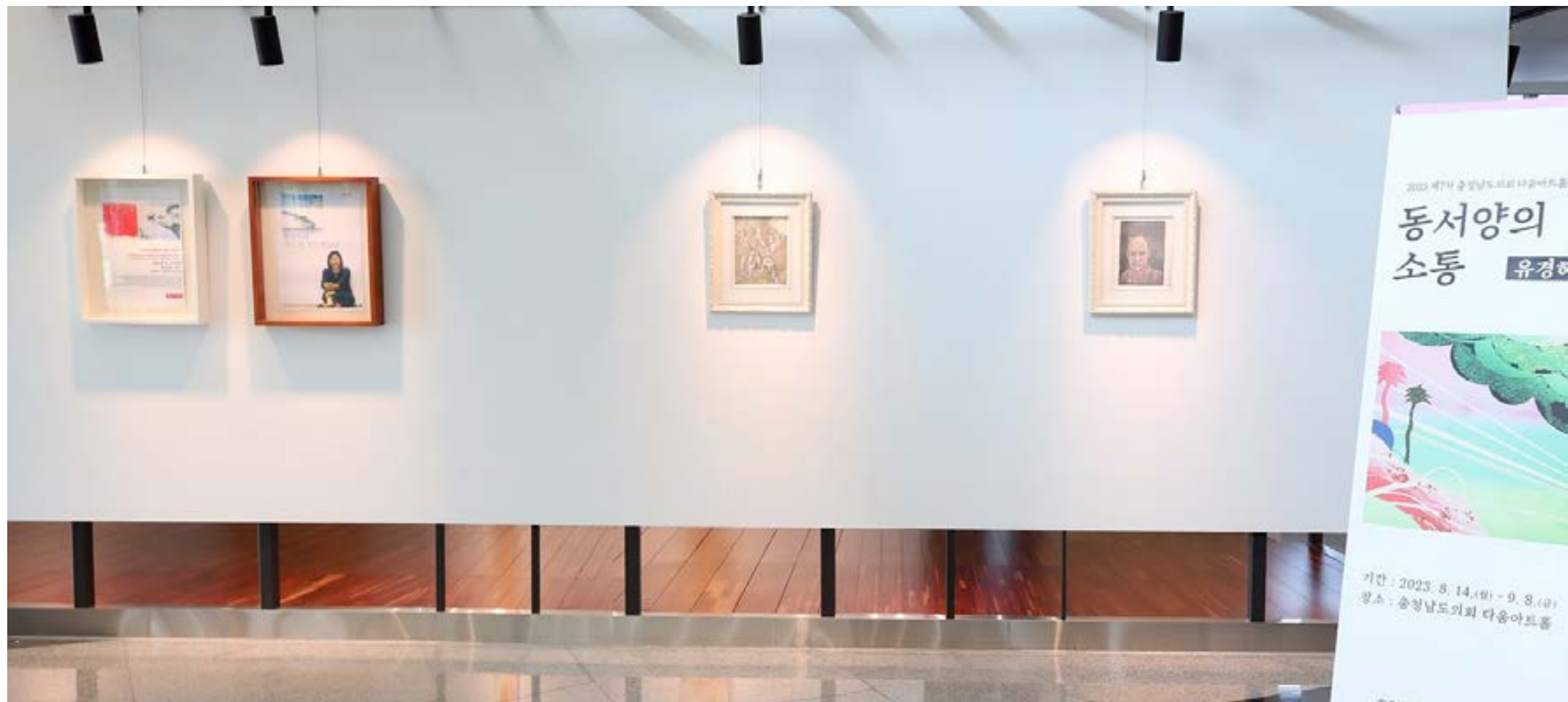
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송춘 김호숙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김호숙 작가의 열한 번째 개인전이자 올해 다움아트홀의 여섯 번째 전시회다. ‘일상의 묵색’을 주제로 매·난·국·죽 사군자 작품 등 32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김 작가는 제도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붓질로 화선지 위에 작품을 표현해 왔으며, 문인화의 여백과 절제미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작가다.

이번 전시회에서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충청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과 전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운 여름 도민들께서 편안하게 휴식하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만나시길 바란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월 14일부터 개최

9월 8일까지 충남도의회 1층에서
‘동서양의 소통’을 주제로
‘Lexicon’를 비롯한 판화 2점
서양화 6점의 작품을 선보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8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유경하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유 작가의 스무 번째 개인전이자 올해 다움
아트홀의 일곱 번째 전시회로, ‘동서양의 소통’을 주제로
‘Lexicon’를 비롯한 판화 2점, 서양화 6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유 작가는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자연과 다문화, 동양과 서양 등을 주제로 오랜 기간 작품
활동을 하며 교편을 잡아 왔다. 또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저서를 통해 충남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소신과 단상을 소개해왔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속
충남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담아냈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우리 지역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고, 도의회를 찾는 도민들께 문화예술 향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서양의 콘텐츠가 결합 된 이번 전시가 긴 장마와
무더위, 태풍으로 힘드셨을 도민들께 위로와 안식으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 다움아트홀

청심 궁중민화
회원展

Part 3

10월 6일까지 충남도의회 1층에서
'청심궁중민화 회원전'을 개최
'행복의 풍경 Happy birthday' 등
20개 작품 선보여



9월 11일부터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올해 여덟 번째 전시인 '청심궁중민화 회원전'을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청심궁중민화연구회는 한국 궁중민화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서산문화원과 서산종합사회복지관 대산커뮤니티센터에서의 지속적인 배움의 열기를 이어 나가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민화는 조선후기 백성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벽사와 복을 불러들이는 길상의 의미로 건강, 장수, 다산, 부귀영화 등의 꿈과 소망이 담긴 민중들의 그림이다. 특히 궁중민화는 궁중장식화와 민화를 함께 연구하는 장르다.

청심궁중민화연구회 지도강사 유소정 작가는 "열심히 배워 전시하게 되면 작품의 질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서 용기가 생긴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회원들이 좋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유소정·강태용·김연호·김미정·김미화·김민채·김양선·유인순·배상이·이난주·유인순·최영란·곽경숙·조정윤·김혜경·추영희·이서영·지유진·함현옥·정현숙 작가 등 20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백룡이와 충랑이를 소개합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호기심이 강한 성격의 백룡이와 충랑이는 충청남도의 이곳저곳 여행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입니다. 항상 도민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두발로 달려가 도와주는 귀여운 두 친구! 백룡이와 충랑이는 더 많은 도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백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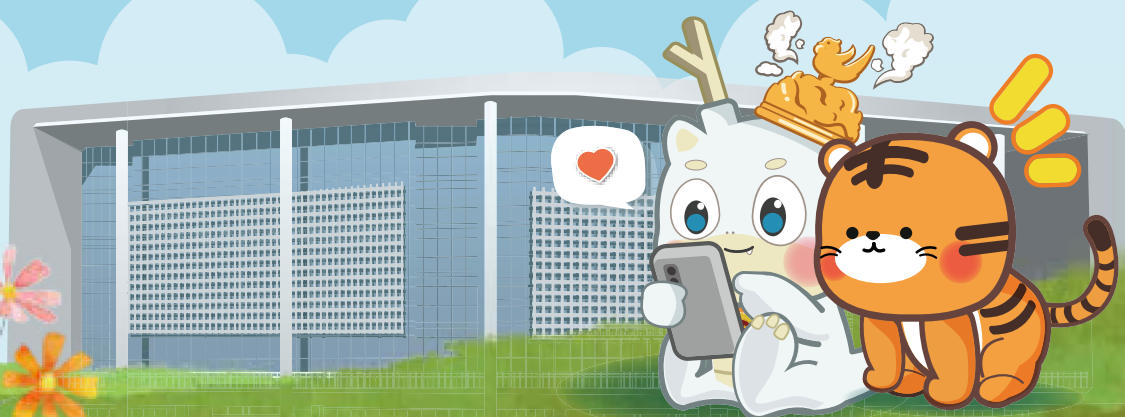
금동대향로의 연기속에서 태어난 아기 용 '백룡이'는 백제의 '백'과 '용'을 조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백제, 용과 연관성이 깊은 충청남도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3마리의 용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된 충남도청사와 용의 몸집에 봉황의 머리를 얹은 듯한 형상에서 유래한 용봉산, 백제 무왕의 용 관련 탄생설화, 금동대향로 등을 모티브로 설정하였습니다.



충랑이

'충'청남도과 호'랑이'의 두 문자를 따 명명된 '충랑이'는 칠갑산, 천장호 전설 등 충청남도 속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와 도민을 위해 행동하는 의회상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충남도민들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의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슈 01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 위촉식 개최

2023. 06. 30.



신규·연임 등 18명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도민과 의회 가교역할 기대”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6월 30일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신규 및 연임 상담관 14명 등 전체 상담관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도의회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민원상담소의 '상담사' 명칭을 '상담관'으로 개정했다.

현재 도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내에 지역민원상담소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시군별로 1개소씩 마련됐으며 천안은 3곳, 아산은 2곳을 운영 중이다. 상담소는 당연직 상담관인 도의원과 위촉직 상담관 1명씩을 배치해 운영한다. 임기는 1년으로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관리 ▲방문 민원인 응대 ▲정책 건의·상담 신청접수와 보고 ▲입법·정책개발 활동 지원 ▲각종 홍보물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책임감을 느끼고 근무하고 계신 상담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도의회에 전달해 주시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핫이슈 ● 2

충남도의회 '세이공청'의 자세로 민의에 충실한 의정활동 약속

2023. 07. 03.



제12대 의회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상' 등 성과 소개

제12대 충남도의회는 7월 3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후 1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민의를 반영한 지역 현안 해결 노력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일인 지난해 7월 1일 제3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간 총 8회의 회기를 124일 동안 운영했다.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승인안 등 403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충청남도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22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의정모니터와 지역민원상담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을 적극 발굴해 왔으며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46명, 128건) ▲5분 발언(107명, 108건) ▲건의·결의문(27건) ▲특별위원회(7개)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에서 인정받은 일 잘하는 의회

충남도의회는 입법·정책연구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운용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책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모임(38개) ▲정책위원회 활성화 ▲의정토론회(23회 개최) 내실화에 힘썼으며, 신규 정책지원관 14명 등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했다. 또 '2023년 예산안 분석, 2022년 결산 분석, 2022 충청남도 재정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심의 자문기구인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다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의 폭을 넓힌 '열린 의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도민제보 제도 ▲결산 감사위원의 도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주요 사업·현안에 대한 현장의정 강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권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의회로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는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과 예·결산분석지원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불확실한 경제전망 등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도민의 고견을 듣고 적극 행동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이슈 ● 3

소통·협업 능력 갖춘 '으뜸 정책지원관' 으로서의 역할 기대

2023. 07. 05.



의정역량 강화 위해 정책지원관 24명 배치
사무처장 간담회 통해 역할과 책임 공유

충청남도의회사무처(사무처장 이정구)는 7월 5일 '사무처장과 정책지원관 간담회'를 열고, 정책지원관들의 건의 사항과 고충 등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지원관과의 소통 및 협업 증대를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구 사무처장을 비롯해 각 전문위원실 수석 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정책지원관들은 근무하며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발전적 아이디어 등을 활발히 개진했다.

이정구 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전문가답게 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과 협업의 자세를 갖추어 달라"고 주문했다.



하이슈 ● 4

충청남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 행정 박람회 '대상' 수상

2023. 07. 09.



선도적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및
지역 현안 대응 역량 강화 위한
노력과 성과 인정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행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홍보박람회다. 박람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지방행정을 펼친 기관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대상'을 시상했다.

이날 충청남도의회는 선도적인 입법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자치입법권의 내실 강화, 예산분석 및 지역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위원회와 연구모임을 적극 운영하는 등 선진적인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 의정 대상을 받았다.

조길연 의장은 "충청남도의회를 한결같이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220만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계속해서 우리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찾이슈 ● 5

"청렴은 더하고 부패는 빼는 '청렴 으뜸' 의회 만들어 가자"

2023. 07. 25.



충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후 청렴 실천 이벤트 개최
청렴서약 등 청렴 실천의지 천명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의 '청렴 으뜸' 의회 실현을 위한 다채로운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제346회 임시회가 끝나는 7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솔선수범,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실천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과 청렴 구호 제창 등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이벤트가 펼쳐졌다.

이날 도의회 소속의원 전원은 청렴 서약을 통해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지향을 상징하는 '청렴은 더하고, 부패는 빼고' 구호 제창을 통해 청렴 으뜸 의회로의 지향을 명확히 했다.

조길연 의장은 "청렴이라는 말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도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제도적 기반 및 실천시스템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시책에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원과 사무처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속적인 청렴 인식을 환기하고, 실천 의지를 고양해 나갈 예정이다.



찾이슈 ● 6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반영한 조례 정비 단계적 추진 성과 가시화

2023. 07. 28.



제346회 임시회 185건 조례 일괄개정 통해
조례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

충남도의회가 올해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례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346회 임시회에서 185건 조례를 일괄개정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도의회는 그동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379건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2월 이를 기초로 단계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정비방안은 개선이 필요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단계별로 ▲1단계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에 대한 정보(법령 데이터) 최적화 ▲2단계 도민의 관점에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문장·체계 등 일괄 정비 ▲3단계 개별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사문화된 조례 폐지, 조례 통폐합 추진 순으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이 정비방안은 입법평가팀 중심으로 전문위원실, 도청 및 교육청 소관부서와 간담회 등 상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에 기반해 그동안 법령 데이터 128건 개선, 조례 80건을 개별로 정비했고 제346회 임시회에서는 185건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하반기에는 3단계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입법평가에 기반한 조례 정비를 지속해 추진하여 도민이 더욱 쉽게 다가가고 도민을 위한 효과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지속해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찾이슈 ● 7

충남도의회 의원 전문성 제고 위한 스피치·AI 활용 교육

2023. 08. 16.



언론 대응, 스피치 기법, 인공지능 활용 등
제2차 의원 맞춤형 교육 시행

충남도의회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12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제2차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첫 시간은 MBC 이종각 PD가 '언론과 친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언론 대응 기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천안시청 서성희 아나운서가 스피치의 기본(발성, 발음, 호흡)과 좋은 연설문 작성법 등 스피치 기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진동환 상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례안 작성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 이번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의장을 접견하고 시설을 견학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심 재개발의 성공 사례로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차이나타운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번 교육의 과목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언론 대응과 스피치 위주로 구성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의 시간이 함께 주어져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찾이슈 ● 8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행감계획 승인 등 99개 안건 처리

2023. 09. 20.

도정·교육행정 질문, 5분발언, 대정부 등
촉구 건의안, 청원 등 정책 제안 활발
11월 6일 제348회 정례회 개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4년 본예산안 등 심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9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에 나섰으며 1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현장 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구형서 의원)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박정식 의원) 등 총 3건 ▲지방도 634호(월북~학암포) 구간 4차로(10.25km) 확장·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윤희신 의원)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48회 정례회로 11월 6일부터 열리며,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필두로 2024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길연 충남도의회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

18대 후반기 회장 선출돼... “지방의회법안 입법화 추진에 더욱 노력할 터”

2023. 08. 02.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8월 2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 정기회에서 18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먼저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협의회장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전반기 협의회장으로서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기틀을 잡아주신 서울시의회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마련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얼마 전 출범한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그동안 의장협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상 제도개선 건의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협치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길연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최선 다할 것”

부여에서 제6차 임시회 개최... 후반기 임원 선임건·정부 건의안 등 19개 안건 채택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제18대 후반기 의장 선출... “지방의회법 제정 등 노력”

2023. 09. 18.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 18일 충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19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 건과 대정부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채택된 주요 안건은 ▲경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건의안 등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회장에 선출된 충남도

의회 조길연 의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어 그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 지방의 생존과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협치를 강화해 각 시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제18대 후반기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회는 어떤일을 할까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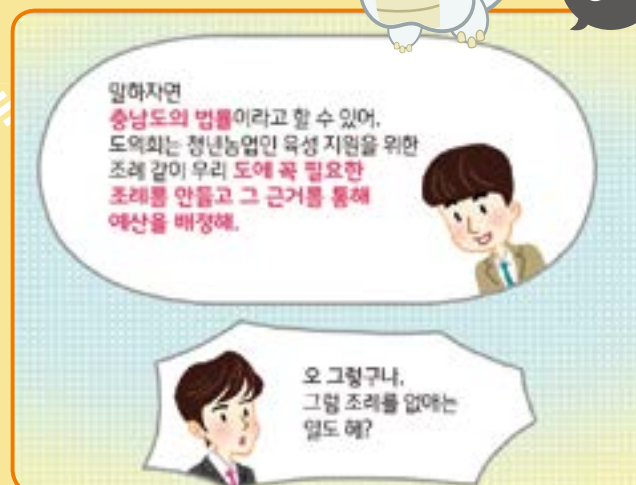
02



03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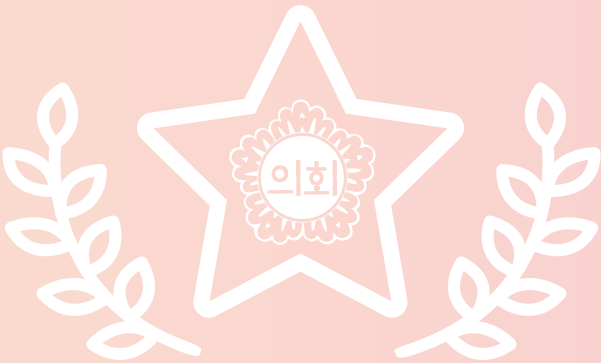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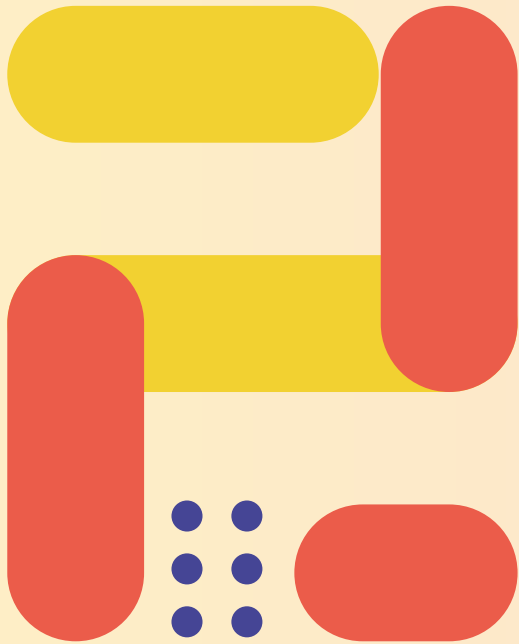
06





도민중심의 변화하는 의회

변화하는 선진의정으로 220만 도민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먼저 다가가 혁신하고 선진적인
의정을 펼치는 충남의회가 되겠습니다.



5분 발언	32
알기쉬운 의회용어	48
도정 · 교육행정 질문	50
동행한걸음(생활상식)	64

선진 의정



지역현안과 민원을 개진, 도민을 위한 5분 발언

【제346회】임시회 제 1차 | 신영호, 방한일, 이완식, 이철수, 김명숙, 유성재

【제346회】임시회 제 2차 | 박미옥, 전익현, 양경모, 박기영, 김선태, 김민수, 김기서
이종화, 최광희, 윤희신, 김명숙, 오인환, 이지윤, 편삼범
박정식

【제347회】임시회 제 1차 | 안장현, 이현숙, 김선태, 유성재, 김명숙, 전익현, 이철수
방한일, 박기영

【제347회】임시회 제 4차 | 윤기형, 오인철, 정병인, 구형서, 김도훈, 신한철, 정광섭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신영호 의원

안전海유 충남 바다, 안심海유 충남수산물

“수산물안전성센터 · 보건환경연구원 방사능 ‘불검출’...

수산물 소비 촉진 노력해야”

범도민적 챌린지 캠페인 실시... 조길연 의장, 김태흠 도지사, 김지철 교육감 지목

제346회 임시회 제1차 / 2023. 07. 12.



 방한일 의원

충남도,농업직불제 확대 시행 힘써야

제346회 5분 발언 통해 농업직불제 확대 · 개편 위한 5가지 방안 제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영농교육, 생태 · 환경보전 영농활동 연계 등 제언

제346회 임시회 제1차 / 2023. 07. 12.



 이완식 의원

철갑지중화 · 도로확장으로 정주여건 개선해야

전철갑 지중화 설치와 농어촌도로 확장 · 포장 통한 정주 여건 개선방안 제시

“시민 안전 지키고 체계적 도로망 구축으로 활력있는 도시 만들어 갈 것” 촉구

제346회 임시회 제1차 / 2023. 07. 12.



 이철수 의원

안전취약계층 위한 화재안전망 강화 주문

신속한 대피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대형참사 이어질 가능성 커
초기 소화장치 및 정기적 점검 등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촉구

제346회 임시회 제1차 / 2023. 07. 12.



 김명숙 의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청양이 최적지

“생태자연도 1위, 희귀·멸종식물 2만9천개체 보존·관리된
청양이 가장 적합” 강조
도립공원 칠갑산과 고운식물원 일대로 연구소 이전 시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소

제346회 임시회 제1차 / 2023. 07. 12.



 유성재 의원

고등교육 자치권 확립은 충남 자치분권의 시작

346회 5분발언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을 위해 교육자치 확립해야”
RISE 사업, 충남도·기업·대학 간 협력 통해 선순환 체계 구축 대응 강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 2023. 07. 12.



 박미옥 의원

‘일회용품 없는 축제장, 탈플라스틱 전환’ 촉구

축제장 일회용품 감량과 탈 플라스틱 전환 정책 마련 필요성 강조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충남도의 탄소중립 의지 피력해 가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전익현 의원

쓰레기로 고통받는 서해와 지역민 고통 호소

5분 발언서 장마철 폭우와 함께 금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더미 문제 지적
수질오염, 수산자원 고갈 등 서해와 서천군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양경모 의원

인구감소 위기, 외국인 이주자 정책으로 대응

저출산·고령화 대응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인 유입 정책 필요성 제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총괄기구 설립 및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박기영 의원

충남형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제346회 임시회 5분발언서 지역 특성 반영한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제안
“침수 지역의 환경정보 데이터 수집·분석 및 지역별 실시간 상황 분석 체계 마련해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 2023. 07. 25.



 김기서 의원

농업생산시설 배수장 전수조사 이뤄져야

5분 발언서 고질적 배수장 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시군 농경지 피해 언급
배수장 CCTV 및 수중펌프 설치, 수리시설감사원 인력 증원 등
개선방안 제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김선태 의원

도민 위한 도정신문, 공정성 확보 해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도민 혈세로 일본 대변...
정치적 중립 포기” 지적
도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염수 반대 목소리 내는 것”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이종화 의원

제2서해안고속도로 동홍성 IC 필요

예산·홍성·청양 접경지 재난대응 위한 소방복합타운 및
신선식품 생산지 집적
경제성 높은 동홍성 IC 설치 통해 물류비용 절감하고 주민 편의 높여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김민수 의원

극한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로 신속 회복해야

5분 발언에서 수해 피해 농가 대출금 원금 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 제안
충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57.5% 불과... 특단의 대책 강구 주문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최광희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보령으로 이전해야

“도유림 49% 집적, 임업연구와 유전자원관리의 최적지는 보령” 5분발언서 주장
산림복지단지 추가비용 및 사유지 매입·보상비 없는 보령시 이전은
선택 아닌 필수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윤희신 의원

존재 지워진 영아 살릴 방안 찾아야

충남 출생 미등록 영아 보호 대책 촉구... “존엄한 생명 지켜낼 것” 강조
저출생 속 영아살해·유기 사건 일어나는 비극... 시급한 방안 마련 필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이지윤 의원

충남과학고 경쟁력 강화 위한 적극 대응 촉구

학교 시설 노후화, 교통편 부실로 학생 불편 심각” 5분발언서 지적
도내 인프라 활용한 과학인재 육성 시너지 낼 방안 적극적 검토 제안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김명숙 의원

배수펌프장 관리 소홀, 침수 피해 키워

농어촌공사 농민들 요청 외면... 인력, 운영비, 예산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해야
“반복되는 수해 막으려면 배수장 및 용배수로 관리 각 지자체가 해야” 제안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편삼범 의원

참전 영웅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 앞장서야

충남 참전 영웅들의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 위한 도비 지원 상향 조정 제안
충남 참전기념관 건립... “전쟁에 대한 교훈과 자유 수호 정신 일깨워줄 것” 당부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오인환 의원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지자체 이양 촉구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5분발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지방으로 이양해야”
지역주민과 원활히 소통·협력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필요성 역설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박정식 의원

교권 추락! 더 이상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

5분 발언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 침해 점검 필요성과 대책 마련 촉구
교사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과 수업권, 안전 확보 보장 필요 당부

제346회 임시회 제2차 / 2023. 07. 25.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장현 의원

“2023년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5분발언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정부 강력 질타

제347회 임시회 제1차 / 2023. 09. 07.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정부의 R&D 예산안 삭감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연안에 버릴 당시 일본은 ‘방사능 초밥을 먹게 됐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며 “그랬던 일본 정부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 미흡 등으로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이 현재는 ‘비과학적이고, 국익을 훼손하며, 괴담’이라고 비난하는 내용 그대로 아냐”고 지적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에 대해 2년 전 국민의힘 한 의원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자신은 물론 온 가족까지 희생된 장군의 희생정신은 모두의 귀감’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그 평가를 완전히 바꾸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65.9%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반대하는데도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는 국방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현숙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리 문제 절실

전동킥보드 안전·이용수칙 홍보 활동 및 전용 주차 공간 설치 주문

제347회 임시회 제1차 / 2023. 09. 07.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안전과 이용수칙에 대한 강력한 홍보 활동과 안전교육, 안전 인식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해 5807건의 사고가 발생, 7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20배나 증가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동시 탑승하는 등 위험한 행위가 빈번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고 있다.

이어 “현재 1만 3,20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 시·군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김선태 의원

내포종합병원 개원 시 소아응급센터 설치 필요

소아 환자 천안·대전 원정 치료 현실 지적… 소아응급센터 설치 촉구

제347회 임시회 제1차 / 2023. 09. 07.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내포신도시에 설립 예정인 종합병원이 개원 시기에 맞춰 소아응급센터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충남도는 명지의료재단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2,807억 4,100만 원을 투입해 11층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의 청사진이 나온 것을 환영하나 용역보고회에서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소아응급센터 설치’가 제외된 것은 유감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내포신도시는 30~40대 부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젊은 도시이나, 현실은 아이들이 애플 경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센터가 없으므로 천안이나 대전으로 원정 치료를 가야만 하는 현실”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내포신도시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소아응급센터를 반드시 개원 시부터 설치하여 제대로 된 병원으로 첫 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재 의원

외국인 사비 조기유학생 적극 유치해야

교육경쟁력 강화 및 학령인구 감소 해결 대안 제시… 국제학교 정책 수익모델 기대

제347회 임시회 제1차 / 2023. 09. 07.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국제학교를 신설하고 외국인 사비 조기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의 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수익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학교 신설과 외국인 사비 조기유학생 유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에 이미 폐교된 학교 수인 33개 학교를 사립 국제학교로 전환한다면 연간 4천억 원의 교육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대학 내에 국제학교를 설치한다면 대학의 위기 해결과 청년 일자리 해소,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 “지방의 생존을 위해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국제학교 및 유학생 유치 정책은 가치 있는 사업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니,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독자적인 글로벌 교육과정 개설과 인프라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숙 의원

모호한 부서명 · 공공기관 명칭 변경 촉구

공공기관 통폐합 후 정체성 등 기관업무 성격에 맞춘 명칭으로 효율성 높여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 2023. 09. 07.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일부 공공기관 명칭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고 도민이 알기 쉬운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행정부서와 공공기관은 도민을 위한 정책서비스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부서명과 기관명은 도민들이 알기 쉬워야 한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통폐합 후에 만든 공공기관명 중 일부는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기관명도 길어 기억하기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도는 올해 초 22개 공공기관을 15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통합기관 출범을 완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나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같이 명칭마저 고민 없이 통합기관명을 그대로 붙여 도민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명은 도민에게 충남도의 분야별 정책을 연구하고, 행정·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억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공공기관명도 문제지만 도청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께서는 전 부서와 전 기관명을 살펴보고 2024년부터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

지역 내 음식문화 혁신 촉구 제언

도내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대책 마련 시급 주장

제347회 임시회 제1차 / 2023. 09. 07.



충남도과 교육청의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는 하루 삼시세끼 푸짐한 한상차림 식문화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만 매일 2만 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 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버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 자원 낭비, 에너지소비, 기후 변화와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 등 지구환경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을 시작으로 식당, 학교 구내식당까지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유기농 비료나 바이오에너지 재활용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쉽고 빠른 감량 대책은 식당과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재활용 인증을 받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대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와 도교육청은 이에 적극 대응해 도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

학생 바른 체형 유지 위한 사업 확대 필요

체형관리 시범사업 측정 결과 학생 63% ‘거북목’, 72% ‘Q앵글’ 정상범위 벗어나

제347회 임시회 제1차 / 2023. 09. 07.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도내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신체 성장 실태를 언급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해 학생 체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해당 사업 측정조사 결과 전체 측정 인원 1,267명 중 63.9%의 학생들이 ‘거북목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72.9%의 학생이 ‘Q앵글(Q각도)’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반과 무릎의 상관관계를 각도로 표현한 것으로, 앵글이 증가하면 ‘X형 다리’로, 감소하면 ‘O형 다리’로 진행된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생활 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향을 넘어 학교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개인과 가정의 몫으로만 돌리기 어렵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므로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문화로 인해 학생의 건강 문제에는 소홀한 것 같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련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

충남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설치 촉구

기부식품의 효율적 관리, 균형 배분, 저소득층 지원 강화 위한 물류센터 설치 주장

제347회 임시회 제1차 / 2023. 09. 07.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 푸드뱅크(Food Bank)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이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 시군 단위 푸드마켓 포함 기초푸드뱅크 2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뱅크는 연평균 160억 4,800여만 원의 제공실적도 갖고 있다”며 “전국 네 번째로 높은 실적이나, 물류센터가 없다 보니 물품이 필요한 기초푸드뱅크 적시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의원은 “대량의 기부 물품을 보관할 물류창고가 없어 기부식품이 도난당하거나, 물품 배분 일정이 조율되지 못하면 남은 식품을 인근 시도로 이관하게 된다”며 “이는 곧 도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경우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물품지원 강화로 더 많은 충남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충남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충남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설치되면 ▲기부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 물품 지원 ▲충남 15개 시·군에 대한 균형적 배분 ▲기부물품 보관·검수·배분의 투명성 확보 ▲금전적·시간적 배송 부담 축소를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박기영 의원

계룡산국립공원 일대 관광지 조성 제안

접근성 강화, 은행나무길 조성, 축제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 구체적 내용 담겨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 2023. 09. 07.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계룡산국립공원 일대를 중부권 내륙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은 풍부한 먹거리와 해양레저산업의 발달로 관광객들로부터 시선과 집중을 받지만, 내륙 관광 상품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 관광객 모객에 한계가 있다”며 “계룡산을 획기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충남도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룡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계룡산 케이블카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민들의 의지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며 진입도로 확·포장 등 접근성 강화, 갑사 은행나무길 조성, 계절별 축제와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과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이 담긴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주시는 세 종시 출범으로 토지와 인구는 물론 주요 기업과 대학교 등을 보상이 내줬다”며 “한때 인구 22만의 충청권 수부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계룡산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347회 임시회 제4차



윤기형 의원

신속 대피 어려운 고령자 가구 화재예방 지원해야

전기·가스·소방 퇴직인력 활용한 안전 점검, 위험 환기 위한 스티커 배부사업 등 제안

제347회 임시회 제4차 / 2023. 09. 20.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국민의힘)은 충남도에 고령자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충남은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기며,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충남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36.37%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기에 안전취약계층인 고령자의 화재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자동확산소화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IoT 화재알림시스템 보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 복구 비용에 비해 예방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워 예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가스 및 전기 안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스티커를 고령자 가구에 배부하여 현관문 앞, TV 옆 등에 부착해 수시로 주의를 환기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화재 예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전기, 가스, 소방 관련 퇴직 인력을 활용해 고령자 가구 안전 점검을 하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활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347회 임시회 제4차



오인철 의원

충남도 수산물 안전성 ‘계획만 남발’ 지적

제347회 임시회 제4차 / 2023. 09. 20.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안전성센터 인력 증원과 기반 시설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과 장비 도입에 따른 시설 증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수산물안전성센터를 방문해 점검한 결과 인력 증원과 기반 구축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도지사는 지난 8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분석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방사능 요구자료까지 증가하는 현시점에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 장기화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덮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확산하고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가격까지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산업 종사자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는데 도지사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확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과연 이 결과가 불안에 떨고 있는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우리 도가 해양 오염수 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책은 수산물안전성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인 의원

경계선 지능인 자립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5분발언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마련 촉구

제347회 임시회 제4차 / 2023. 09. 20.



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느린학습자’로 일컬어지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 이상에서 85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85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 외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동반한다”며 “일반학습과정에 적응이 어렵고, 학교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도 충남도내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경계선 지능인 의심 학생 수는 1,247명으로 전체 초등학교생의 1.08%에 해당한다”며 서울과 강원도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운영 사례를 들어 충남도의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부모로부터 가정적 돌봄이 가능한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호자나 양육할 가정 없이 시설에서 지내는 보호아동일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연계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형서 의원

질 좋고 고른 영양 섭취 위한 급식비 현실화해야

성장기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위한 단가 산정 당부

제347회 임시회 제4차 / 2023. 09. 20.



충남 도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해 벌써 20년간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25여만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급식비 단가는 전국 기준 중하위권밖에 안 된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질 좋고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현실화한 급식 단가가 산정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구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첫째 급식비 현실화, 둘째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 제공, 셋째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또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 확대 운영 등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충남도와 교육청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의원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개발 신속 추진해야

제34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부지 개발 촉구

제347회 임시회 제4차 / 2023. 09. 20.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은 천안시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 부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1999년 9월 준공·개장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2010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2016년 3월 충남도에서 기부채납돼 위탁관리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 기부채납된 이후 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이 꾸준히 검토됐으나 막대한 조성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한계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물류센터 회의 및 연구용역에 사용된 예산만 3억 5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실질적 사업추진이 안 돼 안타깝다”며 “더욱이 현재 도가 계획 중인 사업을 보면 물류센터에 공동주택을 들인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공동주택이 도가 계속 주장해온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공익가치 창출 효과가 나올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가 완성되면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국도 부근에 있는 물류센터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는 부지 활용계획 추진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도는 서둘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실효성 있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한철 의원

소중한 환경자산인 격렬비열도 보전 당부

격렬비열도 불법조업 등의 문제 지적하며 보전대책 수립 촉구

제347회 임시회 제4차 / 2023. 09. 20.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격렬비열도의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격렬비열도는 충남도의 최서단이며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다. 또 멸종 위기종, 희귀 동식물 등이 잘 보존되어 생태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6년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됐다.

먼저 신 의원은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는 영해주권 강화는 물론 생태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서격렬비도에 대한 매입 시도는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등 온전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격렬비열도와 같은 소중한 바다 환경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바다사랑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남도는 격렬비열도항을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시켜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교육청은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광섭 의원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검진이동 버스 도입 촉구

5분 발언서… “충남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 없어 하루속히 지정해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 2023. 09. 20.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충남은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9%보다 9.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남도에 13만 4957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장애인이 등록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의료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에 하루속히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 하고, 민선 8기 장애인 공약 중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 지정·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란 무엇일까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합니다.

01 STEP

지방의회를 알려주세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집니다.



02 STEP

지방의회는 지위를 알려주세요!

지방의회는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폐기청원이란 무엇일까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합니다.

01 STEP

폐기청원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나요?

폐기청원이 되는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예요.

02 STEP

폐기청원을 알려주세요!

그 외에 소관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과 본회의 부의요구가 본 회의에 상정된 후 부결되거나, 의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03 STEP

폐기청원을 알려주세요!

폐기청원 중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04 STEP

오늘의 의회용어 유익하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는
의회용어로 만나요!



도정 · 교육행정 질문

도의원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 등의 도정 및 교육행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시간입니다.

【제346회】임시회 제2차 | 지민규

【제347회】임시회 제2차 | 방한일, 이완식, 김선태, 이상근, 지민규, 조철기

【제347회】임시회 제3차 | 김기서,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김민수, 김응규



지민규 의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2023. 07. 26.

충남도·교육청에 선정적 성교육 도서 대책 촉구

긴급현안질문 통해 과도한 성적 표현 · 그림 담긴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배치 지적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 · 국민의힘)은 7월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선정적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120개 성교육 관련 도서 목록과 관련, 도 소관 43개 공공도서관 중 36
곳에 2,113권이, 도내 718개 학교 중 506개의 학교에서 1,457권이, 교육청 소관
19개 공공도서관에 1,245권이 비치되어 있다.

지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명시된 수백 권의 성교육 도서가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며 “도저히 이러한 도서로 아이를 지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성교육은 생명 존중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생 연령 및 이해도에 따른 올바
른 성교육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6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진행 강사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성 편향적 강의를 진행해 수
강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매년 1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강사의 자질을 고려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매년 1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강사의 자질을 고려해
진행해 달라



방한일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2차
2023. 09. 11.

충남 하수도보급률 10년간 전국 최하위

도정질문 통해 충남 하수도보급률 저조한 이유 묻고
대응방안 강구 촉구

농촌지역 하수도보급률 50~60%대... 상수도 보급률도 전국 하위권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도 하수도 보급률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7.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충남은 93.5%로 평균에 못 미친다”고 우려했다. 충남보다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전남, 제주 세 곳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심각한 것은 하수도보급률이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94.8%인데, 충남은 8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 없이 최하위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15개 시군 중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인 천안·아산·계룡은 85% 이상의 하수도보급률을 보이는 데 반해, 인구수가 적고 도시보다 농촌 지역이 많은 부여·서천·예산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양과 태안은 60%도 안 되는 55%, 59%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에 사는 도민들이 홍수나 전염병에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방 의원은 “지난 10년간 도의 하수도보급률이 최하위인 이유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하수도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도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가 어려운 하수처리장은 기존 처리장과 연계 처리로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0년간 도의 하수도 보급률이 최하위인 이유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도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나”



이완식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2차
2023. 09. 11.

당진 송악 정주여건 개선·도시개발 촉구

인구 유출 문제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 통한 기반 시설
확충으로 해결안 제시

과밀학급 문제 학교 신설 등 조속한 처리로 교육도시 만들 것 강조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송악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며 “당진시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은 좋으나 도시개발은 아주 기초단계에 있다”며 “송악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며 국가산단, 현대제철 등 산업벨트 입지로 인구가 집중돼도 모자란 여건인데 정주 여건이 부족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당진시는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공원 등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도시개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진은 곧 유명도시로 변모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지역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함께 당진에도 인근 도시와 경쟁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도시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당진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데, 기지초와 송악중·고는 충남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급”이라며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 등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충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 영위에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충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 영위에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달라



김선태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2차
2023. 09. 11.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

충남도내 공공도서관 특정도서 열람 제한, 사회적 논란 키워
유해성 판단은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율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 ·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도서관의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 7월 25일 제 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문제 제기된 도서는 이미 열람을 제한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동 · 청소년 유해 도서가 만들어져도 학생들이 그러한 도서를 읽어도 안 되는 것은 자명하다”며 “하지만 이는 쉽고 빠르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기준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 ·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충남의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출판인회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유해성에 관한 판단은 시대 ·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기에 특정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지사에게 “지사님의 도서 열람 제한 조치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오히려 일부 단체에서 금서 읽기 주간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는 해당 도서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충남의 행정이 인권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유해성에 관한 판단은 시대 ·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기에 특정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개념



이상근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2차
2023. 09. 11.

공공기관 홍성·예산 균형배치로 통합 밀거름되길

내포신도시 확장 합리적 행정절차, 충남혁신도시합동임대청사 건립 문제 등 지적

충남교육청 관사 내포신도시 학교교직원 활용 및 (구)홍성여고 주민 활용 등 제안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는 내포신도시 발전과 관련 충남도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갈등 조장을 멈추고,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 · 국민의힘)은 9월 11일 열린 도정 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에 들어서 2030년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내포신도시의 범위를 약 2배가량 늘리고자 타당성 연구용역에 나섰다”며 “하지만 신도시 방사형 도시계획 체계와 진입도로 연계에 따라 확장하게 되면, 내포신도시 인접 지역의 절대농지 해제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관내에 충남혁신도시합동임대청사가 건립되는데, 이와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가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3개 동이 들어서는 만큼 내포신도시 내 홍성군 관내에도 일부 설치하는 등의 해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교육청 관사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공동 숙소 이용 대상이 충남교육청과 연구정보원에 재직하고 있는 570명 직원이라고 답변했다”며 “관사 운영계획 수립 시 내포신도시 내 학교 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드라마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홍성여고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는 내포신도시 발전과 관련 충남도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갈등 조장을 멈추고,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민규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2차
2023. 09. 11.

선정적 도서 이용 제한, 논점 벗어나 쟁점화

과도하게 선정적인 일부 성교육 도서 학생이용 제한을
도서 검열로 몰아

교사업무 경감 위한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
무너진 공교육 강화도 촉구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 · 국민의힘)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특정도서 열람 제한
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
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 의원은 “주장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도서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단체에
서 동성애, 성적 다양성, 도서 검열 등 논점을 벗어나 논쟁하는 현실이 안타깝
다”며 충남교육청에 문제 제기된 도서 관리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심의 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동물과의 성행
위 묘사 ▲집단성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 주관 부처는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도서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또 “현재 충남 726개 학교 중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곳은 132
곳으로 단 18%에 불과하다”며 “사서교사의 확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경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을 제안했다. 이어 아산지역의 ‘2023학년도 교육감 전형’ 진학 관련 “학생들
이 학원 교육을 목적으로 천안과 근접한 학교에 진학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너진 공교육에 대해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서교사의 확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경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을
제안



조철기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2차
2023. 09. 11.

이상동기 범죄 다각적·장기적 대책 촉구

복지정책 사각지대 해소 통한 사회병리현상 치유 및
정신질환 차별인식 해소 강조

지역공동체 치안 조직 협력 강화 등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연휴
위한 치안 확보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 · 더불어민주당)은 도정질문을 통해 다가오는 추
석에 도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치안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
서,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에 대한 충남도의 다각적 · 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경쟁을 촉발하는 사회’, ‘극에 달한 물질만능
주의’ 등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진단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
회병리적 징후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신질환이 모든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이 아니고 입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격리만
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자해 · 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인식을 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전하
고 평온한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시민 경찰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치안 조직과 협력 · 연계해 사건 · 사고 없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시민 경찰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치안
조직과 협력 · 연계해
사건 · 사고 없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김기서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3차
2023. 09. 12.

충남 농산물 판매·유통구조 개선해야

농가 생산농산물 판매 가격 증가 방안제시…
‘시장매도인제, 온오프라인 판매 강조

충남 농가소득 급감 우려,
시장 흐름 파악 통한 유통시장 구조 개선 시급 당부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농가 생산농산물 판매 수취가격 제고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농가소득은 45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농업소득은 무려 29.5%가 급감했다. 이는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비 급등, 쌀값 하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 농업은 현재 여러 악재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악화하는 요인으로는 농업예산의 정책적 문제점과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수익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통해 많은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가 없도록, 나아가 충남 농산물만의 판매 유통전략 수립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첫째로 농산물을 매수·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인 시장매도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는 재분류 등 유통비용이 들지 않고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프라인 경매제’라며 “경매시장에 적당량의 농산물 제공으로 높은 경매가를 만드는 등 전략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꾸준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두 번째로 쇼핑라이브, 블로그 등 온라인도매시장을 준비해야 한다. 이 방법은 유통비용을 7%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셋째로는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센터의 활성화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 농산물만의 판매
유통전략 수립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윤희신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3차
2023. 09. 12.

교권 침해 사전 차단과 교권 강화 조치 강조

3차 도정질문,
교육일반직 고위직 임기 개선 통한 교육체계 강화 당부

교사의 교육 역할과 교육 가치 중요성 전달…
교육청, 솔로몬의 지혜 발휘해야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국민의힘)은 12일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권 침해 대책, 교육일반직 고위직의 임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교권침해 발생 현황은 2020년 1197건, 21년 2269건, 22년 303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충남을 비롯해 모든 시도가 3년째 침해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로 인해 안타까운 교사 자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대책은 그저 사후 수습에 불과할 뿐이며,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지역 교권 침해로의 원인인 마냥 해석하기에 바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교권침해 사전 차단이나 교권 강화, 학생 인성교육 강화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일반직 고위 직급(3·4급)의 6개월 임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9급으로 출발해 35년 정도 근무하고 승진해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찾아드리기 위한 교육지책인 줄은 알고 있지만 조직 역동성이 부족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능력 안 되는 분을 정년 된다고 승진시키기보다는 능력 있는 젊은 직원의 과감한 발탁인사가 필요하다. 또 사무관급 이상의 공로 연수 기간 조정, 7급 공채 채용도 함께 시도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본연의 의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본연의 의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



이연희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3차
2023. 09. 12.

충남 스마트농업 양적·질적 개선 강조

충남 스마트팜 국내외 시장 규모 급성장…
재배 데이터 수집 · 관리 · 활용 강조

현재 계획 중인 스마트팜 단지 규모 협소…
천수만A 지구로 확대” 제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 국민의힘)은 민선 8기 농정 핵심과제인 ‘충남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도정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농촌 문제 해결에 스마트팜이 대안이 된다”며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60년 전부터 스마트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도 스마트팜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충남의 스마트팜은 2020년 116ha에서 2022년 232.2ha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46억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5조 9,588억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 스마트팜의 성공을 위해 재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반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뛰어넘어 시스템적 사고에 근거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B지구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해 “현재 계획 중인 B지구는 9.9ha로 기대에 못 미치는 작은 규모”라고 지적한 후 “천수만 A지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 농업에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초보 · 청년 예비농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 농업에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초보 · 청년 예비농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용국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3차
2023. 09. 12.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 재촉

사전심의 · 사후검증 강화 및 임차농 보호방안 마련 등
철저한 관리체계 당부

충남, 태양광 포화로 민원 증가…
개선 요구사항 반영해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 국민의힘)은 ‘충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절차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상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전심의, 사후검증, 관리감독까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몰리고 있는데, 충남도는 포화상태”라며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심의를 피하고자 발전 용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허가를 신청하는 ‘허가 쪼개기’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편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염도가 나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염도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질 좋은 간척지 쌀을 생산해 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염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농과 청년 귀농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 방안과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지금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민수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3차
2023. 09. 12.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 구조 전환 제안

충남만의 연금제도 완성해
대한민국의 농업정책 변화 일조해 줄 것 당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지방정원 추진... 명확한 기준 세워야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 ·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 산림 자원연구소 이전 및 지방정원 추진’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 고령농의 농지를 이양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이하 연금제)’ 추진을 계획 중이나, 정부가 이와 유사한 경영이양직불금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편이 추진돼도 도가 원래 계획한 연금제보다 신청 면적의 상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과 상관없이 도 차원의 보완을 통해 기존 농업인이 은퇴하고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남만의 연금제도’를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지방정원 추진에 대해 많은 시군이 앞다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의 역량 집중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 공동체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 방안과 교원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2024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산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방안 ▲극한 호우 피해 지원 등을 질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만의 연금제도’를

완성해달라...

충남교육청의 역량

집중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 공동체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



김응규 의원

제347회 임시회 제3차
2023. 09. 12.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신청과정에 다문화 비율 높은 아산 누락 된 점 지적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증대,
충분한 한국어교육 등 공존을 위한 교육 강조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 · 국민의힘)은 도내 일부 지역 및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밀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다문화 학생의 정착과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산으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빠르게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으로 인한 교육 현실의 변화를 교육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학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다문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특구 지정이 필요한 아산 등 일부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신청조차 되지 않았다. 또 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과 다문화유치원 간의 예산 차이, 학급 과밀 운영, 중도 입국 학생의 학업 부진, 교사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국제화특구 미신청으로 타 지자체와 공정한 경쟁도 해보지 못한 채 5년에 한 번 오는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문화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일부 시선이 있으나, 다문화 학생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지역에도 본이 되는 다문화 교육 정책을 통해 이해와 존중이 있는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강한 충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도 본이 되는
다문화 교육 정책을 통해
이해와 존중이 있는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강한
충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
보육료가 부담되나요?

0~5세 우리아이 보육료 지원

0~5세 아이 나이에 따라 폭넓게 지원하는 보육료

바라만 봐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들,
하지만 현실적인 육아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나 육아에 도움이 될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동행한걸음
“보육료 지원”
함께 만나보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매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오늘의 동행한걸음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함께 만나보실까요?





도민중심의 실천하는 의회

실천하는 책임의정으로 220만 도민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먼저 다가가 학습하고 책임지는
의정을 펼치는 충남의회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70
연구모임	77
의정토론회	80
표지이야기	90
도민제보	94



책임 의정



의회운영위원회

2023. 08. 30.

의회운영위, 워크숍 통한 의정 역량 강화 시간 가져

인천시의회와 백령도 현장 방문 워크숍… 의회 운영 발전방안과 안보 의식 고취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이하 운영위)는 워크숍을 통해 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과 안보 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운영위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인천시의회와 백령도 현장 방문 등의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의회 운영 발전방안 모색과 9월 의안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 북한 문제와 관련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운영위는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방문해 의안 처리 절차와 교섭단체 지원방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의회 회의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관련 시설을 견학하며, 충남도의회 의정활동과 제도개선 활용 방안을 고심했다.

이튿날에는 우리나라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해 해설사로

부터 안보 교육을 받았다. 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정세 상황에서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회의를 통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운영위 주요 의안을 토의했다.

방한일 위원장은 “이번 운영위원회 워크숍은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현 정세에 따른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인천의 지역경제 발전 정책, 병원선 운영, 닥터헬기 운용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다른 광역시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2023. 09. 13.

기경위, 기후위기 시대 환경·에너지산업 활성화 최선 다짐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시회 방문… “충남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 접목해 갈 것”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이하 기경위)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환경·에너지산업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기경위는 지난 8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최한 ‘2023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23)’ 전시회장으로 현장 방문을 다녀왔다. 이날 방문에는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과 김석곤(금산1·국민의힘)·이종화(홍성2·국민의힘)·이재운(계룡·국민의힘)·안종혁(천안3·국민의힘)·이지운 의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현재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0% 이상이 몰려있다. 지역민들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비롯해 초고압 송전탑 등으로 고통받아왔다. 이에 기경위는 충남도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경제도시를 조성하고자 이번 산업전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위원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업들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가는지 살펴봤다”며 “우리 충남도 현황과 비교·견학할 좋은 기회였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이어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많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상

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고 전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2023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환경·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더욱이 국민에게도 기후 변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장은 “기후위기 등 환경·에너지 문제는 범국민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 과제이다”라며 “일반인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관련 정책 설명회 및 안내가 마련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에너지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인지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경위는 도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경위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지원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맞춤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현안과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

2023. 09. 13.

행문위 “청년정책, 청년 선호도 반영 및 사후관리 중요”

청년정책관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 동의안 등 15개 안건 심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9월 13일 열린 제 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이날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 참여자들은 대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을 선호한다”며 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매칭이 주로 천안·아산 지역의 기업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어 다른 시·군에서는 일자리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인턴들에게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 배치는 지양하도록 하고, 전공과 관심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산출되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생활창업지원, 기술창업지원 등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팀의 수를 줄이더라도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관의 많은 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지만, 사업 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생계형 업종으로 몰리는 현상과 금융의 안정성 및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 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에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안장현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창작스튜디오 큐레이터의 산출 임금이 생활임금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창작스튜디오가 단순히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2023. 07. 20.

복지환경위원회, 도내 공공의료원 의료인력 확보 강조

여성가족정책관 · 4개 의료원 ·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7월 20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4개 의료원 및 충남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회의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후환경국 하천과의 집중호우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홍수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원의 수익 향상 방안을 모색하되, 도민이 필요한 사업과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등의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최근 집중호우와 침수 이후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의료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골드타임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해서도 소방서 쪽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원도 함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며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매우 부족한데 어린이를 위한 전문의를 모실 수 있도록 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고 건의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성인에게도 의료원 출장 검진 사업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또한 맞춤형 종합검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 4개 의료원 간 시스템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의료 공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응급실 운영 관련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해서 법적 지원이나 대응을 통해 의료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공공의료는 도민 복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 4개 의료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중상위권에 있어 다행”이라며 “코로나19 이전의 병상률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 개소에 있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의료진들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09. 14.

농수해위, 농산물 판로 확보 위해 산지유통센터 찾아

국내 최대 갯잎 주산지인 금산 만인산농협 유통센터 방문해 유통·판로 확대 당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4일 농업 분야 주요 사업장을 방문 해 운영 상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국내 최대 갯잎 주산지인 금산 만인산 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 들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2004년 설립된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현재 94명이 근로 하고 있다. 약 51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총 취급물량 3,439톤, 매출 약 463억 원의 실적을 갖고 있다.

취급 품목은 엽채류 136품목, 648개 상품으로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마켓 매출이 약 9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 급식과 김치공장에 납품되고 있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갯 잎 생산부터 선별·포장 과정 및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등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 농협 관계자 등

과 간담회를 갖고 운영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농수해위 위원들은 “농산물 온라인 시장 납품으로 유통비용 절 감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욱 품질 좋은 농산물 상품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도 힘써달라”고 전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만인산 유통센터는 농가소 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추진 계획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광역화’ 구축사 업을 시작한다. 앞으로 생산지도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핵심 판 매 주체 등 거점 스마트 유통센터로 역할이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소방위원회

2023. 09. 18.

건소위, 가로림만 국가정원 명품화 위한 순천 벤치마킹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 된 순천 국가정원과 전남도립미술관 꼼꼼히 둘러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가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 국가정원과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충남 내포신도시 흥예공원 명품화 사 업과 충남도립미술관 건축 추진계획에 앞서 사전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됐 다. 건소위 위원들은 순천 국가정원에 둘러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갖고 그동 안 순천 국가정원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을 들었다. 또 오천그린광장, 그리아일랜드, 국가정원벚길을 돌아보며 충남의 가로림만 국가정원, 내포 흥예공원 명품화 사업 계획 추진 시 접목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전남도립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의 운영현황과 추진 사항을 설명 들 었다. 특히 충남도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국비 68억 원, 도비 1,101억 원 규모의 미술관 신규사업을 계획 중이어서, 위원들은 더욱 꼼꼼히 둘러보고 질문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이번 방문은 전 남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며 “특 히 현재 충남도 역시 내포 흥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충남도립미술관 사업 추 진에 접목해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등 더욱 알찬 시간이 됐 다”고 밝혔다.

한편 건소위는 지난 8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

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긴 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충남도 내 LH가 시공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아파트 현황(아산탕정 2-A14, 내포 신도시 RH11, 공주월송A-4 등)을 보고 받고, 대책 마련 등 의견을 나눴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로 전 국민 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충남도 자체적으로 무량판 구조 시공 공동주 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 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충남도가 위와 같은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추 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철근 누락 사건은 ‘인천 검단 LH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검단 아파트 의 경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으며, 철근 누락으로 인해 붕괴 사고로 이어 졌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콘크리트 천 장을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천장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에 충분한 철근(전단보강근)을 설치해야 함 에도, 이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위원회

2023. 09. 08.

교육위, 서천 교육지원청·세팍타크로 경기장 건립예정지 점검

서천교육지원청 신청사 · 서천도서관 재건축 부지 점검 및 추진계획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세팍타크로 경기장 건립 등 서천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8일 현장 방문을 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천교육지원청 신청사 및 서천도서관 재건축 부지를 방문해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교육위 위원들과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청사가 건축한 지 40년 이상 되었고 주차장도 협소해 민원이 많았던 만큼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낡고 오래된 청사를 이전하는데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원활한 청사 이전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화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청사 이전은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연계된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는 세팍타크로 경기장 건립을 위한 예정부지를 방문해

전용 경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정부지의 적정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천은 최근 세팍타크로 종목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하고 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서천여중 · 고가 세팍타크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전용 경기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기장 건립 시 학생들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국민의힘)은 “실업팀과의 연계 훈련, 각종 대회 유치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용 경기장은 꼭 필요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서천지역의 교육 현안인 청사 이전과 세팍타크로 전용 경기장 건립이 원만히 추진되길 바란다.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1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오인철)’은 7월 25일 도의회 3층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학교급식 지원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향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또 현장 방문과 정책탐방,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회의는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 윤 교수는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 연구’를 주제로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학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운영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학교 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 07. 25.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질적 향상 위한 지원정책 마련 앞장



오인철 의원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및 1차 회의



2023. 07. 27.

충남도의회, 충남 인문예술의 발전방안 모색

-
-
-
-
-
-

박정수 의원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발족식 및 1차 회의

02

충남도의회가 지역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한 다. 도의회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박정수)은 7월 27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충남 인문예술의 발전 방향 및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역사적으로 중심에 있던 충남의 문화예술 현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현식 전(前) 충남문화재단(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충남 인문예술의 진흥 전략’을, 홍익대학교 이진명 교수가 ‘홍대용: 시대를 초월한 평화 사상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인문예술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관련 콘텐츠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3

충남도의회가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기영)은 8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도민의 안전과 재난 예찰 등 지역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 봉사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짚어보고, 공동활동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출범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신우리 책임연구원이 ‘농어촌지역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 08. 24.

충남도의회, 농어촌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제도개선 연구

박기영 의원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의정토론회

2023. 07. 07.

충남도의회,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김도훈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전문가·관계공무원 참석해 자살예방 사업 방향성 논의

충남도의회는 7월 7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충남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열고 자살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나사랑자살방지협회 강화식 협회장이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운동’을 주제로 도내자살예방 대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마음두레연구소 김도윤 대표, 백석문화대학교 김의영 교수, 호수심리상담센터 민난희 센터장, 충청남도 장동화 자살예방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자살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김도훈 의원은 “자살예방 필터 기능 강화 등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토론회

2023. 07. 28.

학생인권조례 존치 VS 폐지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박정식 의원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교권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토론회가 충남도의회에서 열렸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의 요청으로 7월 28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식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교육청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이 현행 조례에 관해 설명했다. 또 조례 폐지 찬성 측 토론자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신영철 연구자문위원,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참여했고, 폐지 반대측 토론자로 홍동중학교 박신자 교장, 전북교육인권센터 염규홍 인권보호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정식 의원은 “조례 폐지의 찬반 양측 의견을 듣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무조건적인 학생 인권 존중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정리해 학생인권조례의 향방에 참고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토론회

2023. 08. 02.

충남도의회, 금산 인삼산업 발전방안 모색

김복만 의원, 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인삼 소비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는 8월 2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인삼산업,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안전성 관리 강화와 6년근 선호에 따른 대응,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및 인삼약초시장 활성화 등 금산인삼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날 황 회장은 금산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소비자 신뢰 회복 ▲(가칭)한국인삼산업진흥원 설립 ▲수출통합조직 구성 등을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인삼 소비 활성화 방안과 소비 촉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삼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에 치중하기보다 안전성 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를 허물고, 소비자 선호를 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토론회

2023. 08. 18.

충남도의회, 충남 인문예술의 발전 및 활용 방안 제시

박정수 의원 의정토론회, 인문예술 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공유

충남도의회가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8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충남 문화자산의 활용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김현식 前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주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신정근 교수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과 지역 상품의 사례를 비교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충남 문화자산의 발굴, 선양 및 명품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수 의원은 “그동안 충남은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에 걸맞은 발굴 및 활용에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번 의정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인문예술 발전의 장애 요소들을 파악하고, 향후 인문 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토론회

2023. 08. 25.

충남도의회 ‘태실 문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토론회 개최

김옥수 의원 “충남은 태실문화 연구의 최적지… 세계적 가치 재조명 필요”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태실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8월 25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충남의 태실 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꿈꾼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태실(胎室)은 왕실의 자손이 태어났을 때 탯줄을 향아리에 담아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곳을 말한다. 특히 명종대왕태실(서산)과 선조대왕태실(부여), 태조대왕태실(금산) 등의 유적이 있는 충남은 조선왕조 태실 문화의 중심으로 일컫는다. 이번 토론회는 김옥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회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에서 김 연구원은 ▲가봉태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당위성 ▲가봉태실 세계유산화의 충남도 역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충남은 태실 연구 자료가 풍부하고 시기별 대표 태실이 위치해 조선시대 태실 문화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인해 일부 유적들이 손실되고 있어, 이번 토론회가 태실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정토론회

2023. 08. 29.

충남도의회 ‘서해 관문’ 개발 통해 지역 활성화 모색

이완식 의원 ‘당진의 관문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모색’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8월 29일 당진시 송악읍 주민자치센터에서 ‘당진의 관문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좌장을, 오광현 (주)동국엔지니어링 사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진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김택중 충남도 건설정책과장, 이태환 당진시 도시과장이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내빈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완식 의원은 “당진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의 비전을 제시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해양 수도 당진’을 만들어가자”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송악 발전에 유익하고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에서 오광현 사장은 “송악지역은 서해대교가 위치한 당진의 관문으로 관광·산업의 요충지이자 당진항 개발 여력 등 발전 동력이 충분한 곳”이라며 “당진 발전의 견인역할과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해서라도 송악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토론회

2023. 08. 31.

충남도의회 “심리적 위기 학생 보호 위한 통합관리체계 필요”

박미옥 의원 심리적 위기 학생 자살예방방안 의정토론회,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 강조

최근 고립·우울감 등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8월 31일 의회 회의실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 자살예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열고 심리적·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상은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부센터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자살예방 방안(대응체계 중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전문 상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학생 생명존중문화 조성 ▲개입영역 확대를 통한 잠재적 고위험군 체계적 관리 등 위기 학생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미옥 의원은 “현재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토론회

2023. 09. 01.

충남도의회 농업경쟁력 제고 위한 ‘농업예산’ 확대 논의

오인환 의원, 식량안보 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인 농업의 중요성 역설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9월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예산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농업의 현실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농업의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토론회

2023. 09. 04.

충남도의회,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모색 위해 머리 맞대

정광섭 의원 의정토론회서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마련 논의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발전 전환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9월 4일 도의회 3회의실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으로 도내 화력발전소 14기의 단계적 폐쇄(2036년까지)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대체 에너지 전환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 의원은 "화력발전소 폐쇄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적 흐름임에도 정부는 충남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타 시도에 발전소를 건설, 인력 재배치로 해결하려 한다"며 "발전소를 타 시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도내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일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도민이 걱정하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자리"라며 "대체 에너지 발전 전환에 대한 현실적 방안 논의로 도민의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토론회

2023. 09. 05.

충남도의회, 위기의 양봉산업 극복 방안 마련

김민수 의원, 우수품종 개발과 밀원수 확충 등 양봉산업 활로 찾기 위한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위기의 충남 양봉산업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9월 5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의 주재로 '충청남도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를 맞고 있는 양봉산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종사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남도 양봉산업의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최용수 농촌진흥청연구관은 꿀벌 붕괴 증상의 특징·원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또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양봉농가 소득화 안정 방안 ▲연구·개발(R&D)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충남도 양봉 현안과 대책, 충남 양봉산업육성 추진현황, 꿀벌 병해충 방제와 우수품종 보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양봉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봉 산물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양봉 수정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중점화되어야 한다"며 "우수 꿀벌 품종 개발·양산과 밀원수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꿀벌 생태환경 조성 등 각계 분야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 환경보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양봉산업 보전을 위해서는 양봉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며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사문화와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공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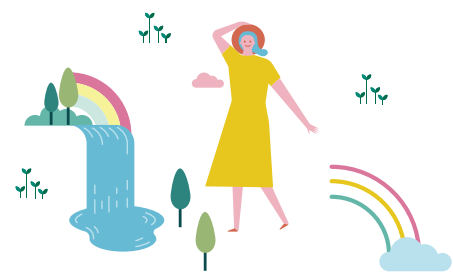
사진출처_충남도민리포터 (필명) 뷰티인사이드

■ 공주 유구 핑크물리정원

충남 공주시 유구 핑크물리정원에는 9월에서 11월 사이 핑크물리가 한가득 피어 여러 사람의 발길을 붙든다. 유구천 앞 광활한 대지에 빼곡히 들어선 핑크물리의 자태는 보는 이를 황홀하게 한다. 햇빛과 어우러지면 더 영롱해져 아름다움이 배에 달한다.

주 소 :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48-18

입장료 : 무료(상시 개방)



사진출처_충남도민리포터 (필명)여행하는리따



■ 공주 미르섬

또한 가을 코스모스를 만끽하고 싶다면 공주 미르섬을 방문해보자. 공산성 인근에 위치한 금강신관공원은 가을의 대표꽃 중 하나인 코스모스를 구경하는 명소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산책로와 피크닉 장소로도 유명하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도 가능하나 목줄은 필수! 매너있게 에티켓을 지키며 산책한다면 모두가 즐거운 가을 여행이 될 것이다. 막힘없는 부지가 넓게 조성돼 있어 산책로 어디서든 코스모스를 맘껏 만끽 할 수 있다. 코스모스 색도 다양한데 흰색은 로맨틱한 사랑을 의미하며, 붉은색은 사랑과 열정이란 꽃말을 뜻한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공산성과 미르섬이 위치해 있어 코스모스와 공산성을 함께 담을 수 있으며, 높낮이가 다른 산맥들을 배경으로 공주시의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

주 소 : 공주시 금벽로 368(신관동 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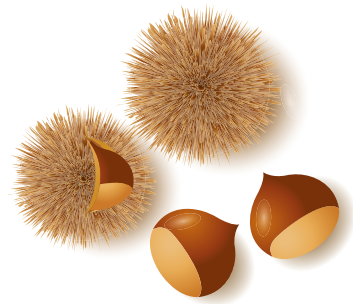
입장료 : 무료(상시 개방)



미르섬 코스모스



미르섬 핑크물리



공주 밤줍기체험



공주시에는 밤 줍기 체험 농장도 많이 있다. 공주를 지나다 보면 산에 밤나무가 눈에 많이 띄는데, 가을이 되면 토실토실하고 맛있는 밤이 가득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공주알밤은 공주특산품으로 계룡산의 맑은 공기와 물, 토양, 유기질 퇴비로 재배하여 고소하고 당도가 높다. 밤줍기 체험은 농장마다 체험방식이 다르니 개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체험농장에서 가을도 만끽하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밤을 줍는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 충청남도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 도민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내실 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집중 제보기간 : 2023. 9. 1. ~ 10. 31.

제보내용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비 보조금의 부당수령, 주요 낭비사례 및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보방법

- 인터넷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council.chungnam.go.kr) >>> 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 FAX
041-635-5283
- 우편(방문)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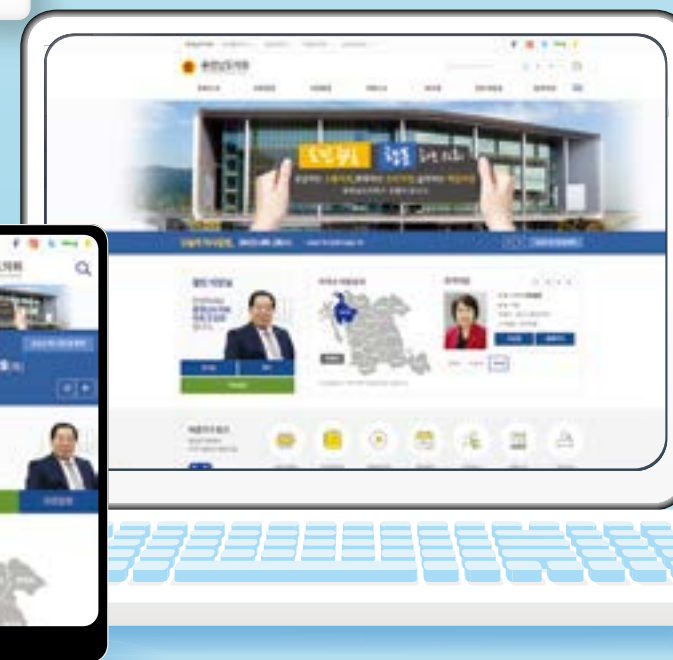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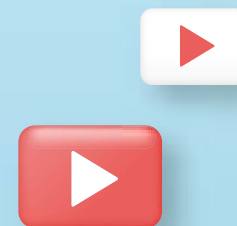
※ 기타 문의사항은 041-635-5083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세상 속

충청남도의회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1

PC버전
홈페이지 중간에
바로가기 링크
'의회소식'클릭

접속방법 2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 입력
council.chungnam.go.kr



의회 방청 안내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5-528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문의 총무담당관실 041-635-5054

방청시 유의사항 ※ 아래사항은 금지됩니다.

1. 방청석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3.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홈페이지 의회소식 → 간행물 → 의회소식지 신청

※ “충남의회”는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 → 간행물 → 의회소식)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 의 041-635-5390 / maria3328@korea.kr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